

Y 태
i 양
이 윤 애 의
Solar Grounds
n 자리
y 리
i

《태양의 자리 Solar Grounds》는 “미술 공간이 정신적 교류의 장소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는 특정한 종교적 대상을 전제하지 않고, 삶에 대한 경건한 태도로 가능한 예술에 대한 옹호와도 가깝다. 각각의 작품들은 신앙의 대체물로서가 아니라, 감각을 매개로 한 표현 형식으로서 전시장을 점유한다. 이윤이의 작업은 레지던시 체류와 같이 떠날 것을 전제한 머倨의 윤리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는 완결되지 않은 여정 속에서 관계와 교류의 흔적을 기록하는 방법론이 작동한 결과로 제시된다.

한편 전시장으로 내려가는 통로에 놓인, 실내를 향한 창문과 전시장 내부에 세워진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법을 응용한 작업은 전통적인 하늘 지향성을 뒤집는다. 마치 땅의 물질과 감각을 통해 신성함의 방향을 땅으로 되돌리는 듯 하다. 뿐만 아니라, 이 전시는 기록 행위를 수행한 장소와 창작물을 선보이는 미술 공간을 ‘공동체’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로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추고, 함께 바라보는 순간 속에서 작동하는 감응의 윤리. 《태양의 자리》는 바로 그 감응이 작동되는 공간이다.

태양의 자리 Solar Grounds begins with a question: Can an art space become a site of spiritual exchange? Rather than presupposing a religious object or doctrine, the exhibition approaches this as an advocacy for an art that arises from a devout attitude toward life itself. Each work occupies the exhibition space not as a substitute for faith, but as a sensory mode of expression.

Yi Yunyi's practice unfolds within an ethic of staying-with-an-awareness-of-leaving—a condition akin to that of an artist-in-residence. Within this framework, her works emerge as a method of recording traces of relation and encounter within an unfinished journey.

Meanwhile, the inward-facing window along the descent to the gallery, and the stained-glass-inspired structures installed within the exhibition, invert the traditional orientation of sacred architecture. The direction of sanctity seems to turn from heaven back toward the ground, embracing the material and sensorial qualities of the earth.

At the same time, the exhibition interprets both the sites of recording and the art space of presentation through the lens of community. It invites an ethics of attunement—listening to one another, pausing, and looking together. 태양의 자리 Solar Grounds is, in this sense, a space where such attunement quietly takes place.

이윤이

서울과 뉴욕에서 문예창작과 복수매체를 공부했다. 2014년 인사미술공간에서 첫 개인전 『두 번 반 매어진』을 시작으로, 2018년 아트선재 프로젝트 스페이스에서 『내담자』를 발표하고, 같은 해 두산연강예술상을 수상했다. 2019년 두산갤러리 서울에서 『싹 다 살아졌음』, 2021년 두산갤러리 뉴욕에서 『A Son Older Than His Father』를 개최했다. 2021년 『Chicago Review』 가을호 ‘한국 현대시와 여성 시인’ 특집에 비주얼 포트폴리오가 소개되었으며, 2023년에는 제주도에 관한 아티스트북 『오늘 오름 Gravity toward the Island』을 출간했다.

Yi Yunyi

Yi Yunyi studied Creative Writing and Combined Media in Seoul and New York. She held her first solo exhibition, *A Round Turn and Two Half-Hitches*, at Insa Art Space in 2014, followed by *CLIENT* (Art Sonje Project #3, Art Sonje Center, 2018), the same year she was awarded the Doosan Yonkang Arts Award. Her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All Survived* (DOOSAN Gallery, Seoul, 2019), and *A Son Older Than His Father* (DOOSAN Gallery, New York, 2021). Her visual portfolio was featured in the Fall 2021 issue of *Chicago Review*, in a special section highlighting contemporary Korean poetry and women poets. In 2023, she published the artist book *Gravity toward the Island*, based on her research on Jeju Island.

전시를 여는 에세이

： 빛이 머무는 자리에서

글. 퍼레이드 & 패치워크
seirhee.com

#

우리가 바다, 태양,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얼마나 조사하고 알고 머물고 돌봐야 말할 수 있을지해서, 문득 손길과 발길을 멈춘 적도 있다. 그럼에도 미술 공간은 우리에게 개인의 언어가 성립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잠시 안도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가깝기 때문에, 만들어온 작품들을 풀어놓는다. 이곳은 아름다움, 윤리, 자유나 평등의 감각이 복원되는 자리이다. 마치 게오르그 짐멜이 ‘정신적 삶(Geistesleben)’ 논의를 통해 말하는, 즉 신앙을 위한 외부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건(devotion), 개인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무언가를 예술과 연결지을 수 있을까. 삶을 경건하게 감각하는 태도로 만든 예술 말이다.

이윤이 작가의 개인전 《태양의 자리 Solar Grounds》는 익숙한 믿음의 형태, 혹은 신앙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여러 설치와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미술 공간이 정신적 교류의 장소가 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했다. 작품들은 신앙의 대체물로서가 아니라, 감각을 매개로 한 표현 형식으로서 전시장을 점유한다. 전시장에는 〈적녹백〉이란 이름으로, 스테인드 글라스 형상을 참고해서 제작한 세 점의 아크릴 판이 서있다. 전통적으로 하늘의 빛을 받아들이는 수직적 건축의 창이던 스테인드 글라스 형식은, 여기서 그 방향을 바꾼다. 그는 신안의 진흙과 바다의 염분, 갯벌의 흔적을 유리 위에 섞은 것처럼, 이 창문들은 더 이상 하늘을 향한 통로가 아니다. 마치 땅의 색, 바람의 염분, 바다의 입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스러움의 방향을 하늘에서 땅으로 되돌리는 걸까.

이번 전시가 열리는 장소는 행인이 많은 동네 한가운데에 위치한 갤러리 조선의 지하 공간이다. 관람객은 깊숙이 이 공간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때 햇빛을 더 강렬하게 맞이하게 될 것

같다.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퀼른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교리적 이미지가 아닌, 무작위로 배열된 색채의 빛을 통해 초월적 경험을 다시 구성했던 것처럼, 이 전시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의 형식은 교리를 비워낸 자리에 물질의 감각을 불러온다. 리히터는 “예술은 감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이며, 신을 찾는 종교적 탐구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윤이의 작업이 보여주는 것 또한, 일종의 초월을 외부에서 찾기보다 감각과 물질을 통해 발견하려는 예술 창작 태도에 가깝다. 《태양의 자리》는 빛과 흙, 하늘과 땅, 관계와 교류가 서로의 표면에 달고 섞이는 곳을 떠올리게 한다.

#

나는 종종 멀리 다녀온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는 걸 즐긴다. 어딘가에 직접 가본 사람이 가져온 경험과 기록, 그로부터 파생된 감각과 언어를 듣는 일은 언제나 내게 한 장르처럼 여겨진다. 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제도이다. 예술가는 한 장소에 잠시 머물며, 사람과 풍경, 대화와 움직임을 기록한다. 이는 관광객의 시선이 아니라, 머무는 자의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좀 더 가깝다. 이윤이의 작업은 예술가의 레지던시, 즉 떠날 것을 전제한 체류 속에서 만들어졌다.

작가가 특정 장소에 머물며 카메라를 들고, 기록하는 것은 물질들과 시간, 관계의 양상이다. 완결되지 않은 여정 속에서 가까운 곳과 먼 곳을 오가며, 종종 국경을 넘나든다. 그 과정에서 남겨지는 것은 일시적으로 스쳐간 언어, 몸짓, 표정 같은 것들이다. 나는 이윤이의 작업을 보며, 이러한 종류의 교류 – 떠남과 머무름 사이에서 발생하는 활동들 – 를 하나의 장르, 혹은 표현 방법으로 이해한다.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은 어떤 가치의 교환이나 제도적 결과로 환원되지 않는다. 장소는 체험의 배경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되는 접점이 된다.

*

Gerhard Richter, gerhard-richter.com, Quotes on Art – “Picturing things, taking a view, is what makes us human; art is making sense and giving shape to that sense. It is like the religious search for God.”

이윤이 작가는 생태와 자연에 그리고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물들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바깥 환경과 지역으로 직접 나가 사람들과 만나고, 카메라 앞에 서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 〈두 앵커 (퍼포먼스 기록)〉에서도 그렇지만, 때로 오브제를 만들어 착용하고, 거리에 나섰다. 그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관계 맺기의 방법이었다. 그의 작업에서 예술적 기록이란 곧 한 장소에 머물고 상호작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다. 그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함께 걸은 길, 그 안에서 나눈 정서들은 모두 작업의 재료이자 결과로 남았다. 최근 몇 년간 제주, 신안, 해남 등지로 이어진 방문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긴 여정이 되고 있고, 올해 그가 다시 방문한 신안의 땅은 그의 작품에서 무엇보다 햇빛과 바람으로 소금을 얻는 생태적 순환의 장소이다.

영상 작품 〈파라클레토스〉에는 자연, 환경, 풍경, 퍼포먼스와 노동의 소재들이 등장한다. 신안 중도의 염전, 그물, 교회, 여름 성경 학교, 퍼포먼스, 워크숍 등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윤이의 촬영 혹은 편집 과정은 그것들을 단일한 내러티브로 묶지 않는다. 관찰적 장면과 상호작용적 장면이 섞이며, 때로는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에피소드가 삽입되기도 한다. 이는 주로 다큐멘터리 영역에서 논쟁하는 사실성의 규율에서 벗어나, 삶의 모호성과 불연속성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다. 그는 대상에 몰입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

이번 전시 제작 과정을 곁에서 같이 하며, 이윤이의 창작 활동이 만남들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새삼 다시 발견했다. 그는 작품을 제작하기 전, 조사와 연구의 과정 뜯지 않게, 먼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의 작품 속에서, 혹은 설치 작업의 흔적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화와 우정, 즉흥적 교류다. 이는 그의 작품 속 구체적 장소에서 대화와 행동의 수행으로 드러나고, 표시되고, 기억된다. 나는 이 장면들을 지켜보며, 예술을 둘러싼 공동체를 무목적적인 공동체/관계들로 연관지어 생각해 봤다.

작업 과정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들은 종종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때로는 방향을 잃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과정의 본질을

드러낸다. 목표나 성취보다는 관계가 남는 과정, 말과 행동, 주저함과 망설임이 모두 기록되는 과정. 이윤이 작가의 작업에서 이러한 느슨한 공동체의 형태가 슬며시 생성되고, 기록되는 순간들이 있다. 영상 작품 속 인물들이 기도하고, 노래하고, 염전 위를 걷고, 바다 옆에 모인 장면들은 모두 느슨한 관계 짓기 퍼포먼스로 읽을 수 있다. 그 행위는 교리를 대체하는 언어로 볼 수 있고, 각자의 존재를 증명하는 몸짓이기도 하다. 이 퍼포먼스들 그리고 이 기록이 누군가를 혹은 어떤 순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의 작업은, 곁에 서있는 존재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낸다. 그것이 곧 예술의 의례이자 공동체의 형식이기도 하다. 관객도 작품 앞에 서면, 한 명의 참여자가 된다.

한편 ‘예술이 줄 수 있는 위안’을 구원에 빗댈 수 있을까. 종착지나 교리를 취하지 않는 종류의 구원. 서로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추고, 함께 바라보는 순간 속에서 미세하게 작동하는 것으로서의 구원. 그것은 실제로는 ‘철저히 주관적인 사실’로서의 위안으로 다가올 것이다. 믿음을 둘러싼 제도에서 벗어난 구원의 본질적 요소는, 개인의 감각 안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 예술은 구원을 말하기 전에 혹은 이를 말하면서, 현실을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관계적 윤리를 맺으며, 현실에 감응하는 방법을 실행한다.

퍼레이드 & 패치워크

“《태양의 자리》에서 이윤이 작가는 전체 창작 프로젝트와 이 전시의 호스트로서, 다양한 관계들을 작업 과정에 포함시키고, 또한 새로 만들었다. 나는 이 전시의 큐레이터이자 협업자로서, 작업 전반에 걸쳐 중간중간 대화를 나눴고, 작품 내부의 구조나 언어적 표현을 만드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작업의 방향을 논의하며, 때로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때로는 그저 질문만 던지는 데 머무르기도 했다. 무엇보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 단상, 발견들에 대한 작가의 말들을 들었다.– 전시를 여는 첫 에세이의 작성자이기도 하는 나는 전시 보는 한 가지 관점을 제안해본다. 이 에세이에서는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한 ‘예술을 통해 모이는 자리’를 다시 생각해볼 계기이기도 했다.”

작품 목록

이윤이, 〈파라클레토스〉, 2025

싱글채널 4K 비디오, 컬러, 사운드, 25분 17초

전라남도 신안 증도에서의 리서치와 체류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염전, 여름 성경학교, 힐링센터, 그물 천막, 낙조 전망대 등 섬의 다양한 장소를 따라가며, 공동체가 머무르고 연결되는 놀이, 일터, 전도, 배움의 자리를 함께 만들고 경험했다. ‘파라클레토스(Parakletos)’는 헬라어로 ‘곁에 서는 자’, ‘위로자’, ‘보혜사’를 뜻한다. 보이지 않지만 곁에 있는 존재들, 말을 건네는 풍경, 잊혔으나 여전히 머무는 이름들과 감정들에 주목하며, 기록과 연출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고자 했다. 지역 교회 학생들, 주민, 염전 직원들, 안무가, 스태프 등 여러 협업자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다. 작업 내내 ‘누가 누구의 곁에 서고 끝내 남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윤이, 〈두 앵커 (퍼포먼스 기록)〉, 2025

싱글채널 4K 비디오, 컬러, 사운드, 26분 14초

두 앵커는 닮이자 목소리다.

하나는 머물고, 다른 하나는 전한다 – 고정과 진행.

오래된 문양은 어떻게 남을까.

공공조각은 오늘의 토템일까.

가을 철새에게 길 안내와 안녕을 건넨다.

노래가 멈추면, 잠시 싱크되기를.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신호와 진동, 하늘의 전령들.

이윤이, 〈적녹백〉, 2025

아크릴 판에 글래스 데코, 소금, 황토, 머드, 크리스탈 레진,

각 580×1820mm

세 가지 색 – 적(赤), 녹(綠), 백(白) –의 상징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 폭의 평면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이다. 밭 전(田) 형태의 패턴과 흙, 소금 같은 재료는 땅과 태양, 그리고 노동의 물성을 환기시킨다. 서 있고, 기대고, 누워 있는 세 개의 판은 각각 서로 다른 위격(persona)을 드러낸다.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감정과 행동을 지닌 인격체처럼 묘사되며, 노하거나 용서하는 등의 지극히 인간적인 동사로 서술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윤이, 〈수호령〉, 2025

OHP 필름에 소금, 머드, 크리스탈 레진, 각 210×296mm, 7점

〈적녹백〉를 위한 예비이자, 그 과정에서 깃든 정령과도 같은 부산물이다. OHP 필름 위에 소금, 머드, 레진을 조합해 재료의 반응성과 투명성, 빛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삼면화를 구성하고 구획하는 여러 감각적 경로들을 제시하고 안내하고자 했다.

딜리네스, 〈머뭇〉, 2025

카드보드(판지)에 제록스 인쇄 컷아웃 콜라주, 아쿠아 리타더, 각 350×480mm, 7점

아티스틱 리서치 듀오 딜리네스(이윤이, 조재영)의 2025년 프로젝트 《건조한 여정, 습한 여정, 지고한 여정》의 일환으로 기획된 출판물의 원본 일부이다. 신안 증도의 물길과 대기의 흔적을 담은 젤 플레이트 판화를 재인쇄해, 손으로 자르고 붙이며 이어진 대화 속에서 틈틈이 만들어졌다. (delines.site)

Work List

Yi Yunyi, Who Stands Beside, 2025

Single-channel 4K video, color, sound, 25 min 17 sec

Developed through research and residency on Jeungdo Island in Shinan, Jeollanam-do, this work follows the island's varied sites—the salt fields, a summer Bible school, a healing center, canopy tents, and a sunset observatory. The artist took part in shaping and experiencing spaces of play, work, evangelism, and learning that nurtured the bonds within the community.

The title *Parakletos* derives from the Greek word meaning “one who stands beside,” “comforter,” or “advocate.” The work reflects on unseen presences nearby, landscapes that seem to speak, and names and emotions once forgotten yet still lingering, maintaining a subtle tension between documentation and direction. Created in collaboration with local church students, residents, salt field workers, a choreographer, and production staff, the work continually asks: Who stands beside whom, and who, in the end, remains?

Yi Yunyi, Two Anchors (documentation of performance), 2025

Single-channel 4K video, color, sound, 26 min 14 sec

Two Anchors both moor and vocalize.

One remains, the other moves—a dance of fixity and flow.

How do ancient patterns endure?

Could public sculpture be today's totem?

To autumn birds, we offer guidance and farewell.

When the song fades into silence,

may we find a fleeting sync.

Signals transcend language—messengers of the sky.

Yi Yunyi, Chromatic Personae, 2025

Glass deco, salt, red clay, mud, crystal resin on acrylic panels (set of 3), Each 580×1820mm

This three-panel work, composed around the symbolism of three colors (red, green, and white) takes the form of planar stained glass. The field-shaped (田) patterns and materials such as soil and salt evoke the physicality of earth, sunlight, and labor. The three standing, leaning, and reclining panels each embody a distinct persona. The artist was intrigued by how, in the Bible,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are described as persons with emotion and agency—depicted through profoundly human actions such as becoming angered or forgiving.

Yi Yunyi, Guardians, 2025

Salt, mud, crystal resin on OHP film (set of 7), Each 210×296mm

A precursor to *Chromatic Personae*, this series is also a byproduct that carries the spirits that emerged throughout its making. By combining salt, mud, and resin on OHP film, the artist explores the responsiveness and transparency of the materials and their relation to light, offering and guiding multiple sensory pathways that structure and partition the three paneled work.

Delines, Murmur/ation, 2025

Xerox cut-out collage on cardboard, aqua retarder (selection of 7 from a set of 27)

Part of *A Journey Unfolding Through Dryness, Humidity, and Spiritual Elevation* (2025), a project by the artistic research duo Delines (Yi Yunyi and Cho Jaiyoung), this work presents a selection of original collages from the project's publication. Using reprinted gel-plate prints capturing the traces of waterways and atmosphere of Jeungdo Island, the collages were created intermittently through a dialogue of cutting, pasting, and reassembling by hand. (delines.site)

크레딧

주최·주관: 이윤이

큐레이터일 협력: 퍼레이드 & 패치워크

설치 디자인: 최조후

미디어 장비: 올미디어

그래픽 디자인: 플레이트

사진 촬영: 흥철기

〈파라클레토스〉

제작

- 각본·연출: 이윤이

- 촬영·편집: 이희인

- 음악·사운드 디자인: 김남윤

- 프로덕션 코디네이터: 최재이

- 어시스턴트 프로덕션 매니저: 박정연

- 큐레이터일 협력: 퍼레이드 & 패치워크

- 타이틀 디자인: 플레이트

- 자막 감수: 이윤

출연

- 퍼포머·안무가: 장윤하

- 이종석 이장님, 양재서 학생-그룹 천막

- 목포 상락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김탁, 최재혁 학생 (인터뷰)

- 증도 대초리 교회 학생들

- 흥수연 님, 김향체 님 (스파 손님)

장소 및 도움주신 분들

태평염전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지도증도로
I058

- 김상일 사장님, 박종화 본부장님,
김치영 부장님, 이대현 대리님,
송재평 매니저님, '소금 같은 예술'
장태원 대표님, 해양힐링센터
김봉주 차장님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문준경길 234

- 안상기 장로님

목포 상락교회

-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I5번길 7-I
- 강은충 목사님, 프로그램 운영자,
중·고등부 학생들

대초리교회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277
- 나총식 목사님, 여름 성경학교 방문
교사들, 대초리 아이들

〈두 앵커(퍼포먼스 기록)〉

- 연출: 이윤이
- 프로듀서: 신진영 (아파란/어스)
- 퍼포머: 이윤, 방지현
- 사운드 디자인: 김남윤
- 영상: 이희인
- 음원: 구토와 눈물 (흥철기와의 협연),
〈Naptalam〉 (Sun Plaza, 2023)
- 번역: 이윤
- 촬영: 이진실, 이학민
- 동시 녹음: 김하은
- 주최·주관: 원드밀

〈적녹백〉

제작 도움: 유지인

〈머뭇〉

컨셉, 콜라주: 딜리네스 (이윤이, 조재영)

Credit

Organized by Yi Yunyi

Curatorial Collaboration:

Parade & Patchwork

Installation Design: Choi Johun

Media Equipment: Allmedia

Graphic Design: Plate

Photography: Hong Chulki

Who Stands Beside

Production

- Written & Directed by Yi Yunyi
- Cinematography & Editing:
Lee Heein
- Music & Sound Mixing:
Kim Namyoon
- Production Coordinator:
Choi Jaeyi
- Assistant Production Manager:
Park JungYeon
- Curatorial Collaboration:
Parade & Patchwork
- Title Design: Plate
- Subtitle Proofreading: Yoon Lee
- Cast
- Performer & Choreographer:
Jang Yunha (Cindy)
- Lee Jongseok (Village Head),
Yang Jaeseo (Boy)-Net Tent
- Daechori Church Students
(Juengdo): Kim Tak, Choi Jaehyuk
(Interview)
- Hong Suyeon, Kim Hangche
(Spa Guests)

Locations and Acknowledgments

Taepyeong Salt Farm

- I058 Jidojeungdo-ro,
Jeungdo-myeon, Shinan-gun,
Jeollanam-do, Korea
- Kim Sangil, Park Jonghwa,
Kim Chiyoung, Lee Daehyeon,
Song Jaepyeong, 'Art Like Salt'
Jang Taewon, Marine Healing
Center Kim Bongjoo

Moon Jun-gyeong Martyr
Memorial Hall

- 234 Moonjungyeong-gil,
Jeungdo-myeon, Shinan-gun,
Jeollanam-do, Korea
- Elder Ahn Sangki

Sangrak Church, Mokpo

- 7-I Namnong-ro I5beon-gil,
Mokpo-si, Jeollanam-do, Korea
- Pastor Kang Eunchoong, program
facilitators, and youth group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aechori Church

- 277 Daecho-ri, Jeungdo-myeon,
Shinan-gun, Jeollanam-do, Korea
- Pastor Na Choongsik, visiting
teachers from the summer Bible
school, and the children of
Daechori

Two Anchors (documentation of
performance)

- Director: Yi Yunyi

- Producer: Jinyoung Shin
(apparat/us)

- Performers: Yoon Lee,
Bang Ji Hyun

- Sound Design: Kim Namyoon
- Video: Lee Heein
- Music: Vomit & Tear
(with Hong Chulki), Naptalam
(Sun Plaza, 2023)

- Translation: Yoon Lee
- Cinematography: Lee Jinsil,
Lee Hakmin
- Sound Recording: Kim Haeun
- Organized by Windmill

Chromatic Personae

Production Support: You Jiin

Murmur/ation

Concept, Collage: Delines
(Yi Yunyi, Cho Jaiyoung)

태양의 자리

이윤이

2025.II.4.(화)-II.30.(일)

10:30-18:30

매주 월요일 휴관

갤러리 조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길 64

오프닝 리셉션

2025.II.4.(화) 17:00-20:00

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Solar Grounds

Yi Yunyi

November 4 (Tue)-

November 30 (Sun), 2025

10:30-18:30

Closed every Monday

Gallery Chosun

64, Bukchon-ro 5-gil, Jongno-gu,
Seoul, Korea

Opening Reception

November 4 (Tue), 2025

17:00-20:00

2025 SFAC Art Support Program

Suppor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